

기생충망상증의 피부과적 접근: 3년간 32예에 대한 후향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피부과

김진아 · 김미리 · 박현정 · 조백기

Management of Delusions of Parasitosis in Dermatology: A 3-year Retrospective Study of 32 Cases

Jin A Kim, M.D., Miri Kim, M.D., Hyun Jeong Park, M.D., Ph.D., Baik Kee Cho, M.D., Ph.D.

Department of Dermatology, Yeouido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Background: Delusions of parasitosis (DOP) is a psychiatric disorder in which patients have a fixed, false belief that they are infested by parasites. Management of patients with DOP presents a challenge to dermatologists, because such patients usually refuse to see a psychiatrist.

Objectiv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inical manifestations and responses to treatment in DOP patients.

Methods: Between January 2010 and December 2012, the medical records of 32 DOP patients were reviewed to obtain data on clinical presentation, family history, accompanied psychiatric disorders, and treatments.

Results: The male-to-female ratio was 1 : 4.3. Twenty-two patients (68.8%) had symptoms for over 6 months. Seven patients (21.9%) had apparent skin lesions. Eighteen patients (56.3%) had a positive specimen sign. Three patients had depression, 4 had insomnia, and 2 had other delusional disorders. Eight patients (25%) reported that their family members were also experiencing itching. Six patients underwent skin biopsies, the results of which were consistent with chronic dermatitis. With pimozide treatment, 6 patients (18.8%) achieved complete remission, 17 (53.1%) showed a partial response, and 9 (28.1%) showed no response.

Conclusion: Because DOP patients depend on dermatologists for treatment, it is crucial for dermatologists to be prepared for the proper management of this condition. This study expands our understanding of the disease and suggests the optimal methods of treatment. Further studies on socioeconomic data and selection of effective antipsychotics are needed. (Korean J Dermatol 2015;53(3):217~221)

Key Words: Delusions of parasitosis, Pimozide

서 론

기생충망상증(delusions of parasitosis)은 기생충을 비롯한 생물 또는 무생물에 감염되었다는 잘못된 믿음이 확고한 상태를 가리킨다¹⁻⁵. 이러한 상태는 delusional parasitosis, delusional infestation, Ekbom syndrome, acarophobia, parasitophobia 등의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다^{1,4,6}. 정신

과적으로는 DSM-IV-TR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 Text Revision)에 따라 신체형 망상장애로 분류되어 있다^{1,2,6}.

기생충망상증 환자들이 피부 증상을 호소하며 대개 처음 찾는 곳이 피부과인데다가 대부분 정신과 진료를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들은 이들을 치료하는 데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3,7,8}. 환자들은 잘못된 믿음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더디며 의사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병원 쇼핑을 하고 자의적으로 살충제나 린단 등을 몸에 여러 차례 바르거나 기생충물질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파내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다^{2,5,6}. 이들 환자들 중에

<접수: 2014. 8. 20, 수정: 2015. 1. 22, 게재허가: 2015. 2. 16.>

교신저자: 조백기

주소: 150-713 서울시 영등포구 63로10

여의도성모병원 피부과

전화: 02)3779-1233, Fax: 02)783-7604

E-mail: bkcho@catholic.ac.kr

는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다른 정신과적 질환이 합병하는 사례가 많아 정신과와의 협진이 절실히 요구된다^{2,6-8}.

본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외래를 찾은 기생충망상증 환자 32명의 임상적 특징과 합병 질환 및 치료 반응 등을 후향적 조사를 통해 보고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여의도성모병원 피부과 외래에서 기생충망상증으로 진단된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임상사진, 진료기록지, 조직검사, 혈액검사 등을 통해 후향적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조사하였다.

1) 임상적 소견

기생충망상증으로 진단된 환자 32명의 성별과 조사 기간 내 첫 내원 시의 연령 분포, 그리고 첫 발병 시 연령을 조사하였다. 발병 후 첫 내원까지 걸린 기간과 본 외래에서의 추적기간을 조사하였고 환자가 감염원이라고 생각하여 가져오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과 그 증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위 및 피부과의사가 관찰한 피부징후와 조직검사 소견을 조사하였다. 또한 초진 시 CBC, eosinophil count, serum IgE, AST, ALT, BUN, Cr 등의 혈액검사 결과를 조사하였다.

2) 사회경제학적 상태

환자의 직업, 학력, 종교, 가족관계, 혼인상태, 거주형태를 조사하였다.

3) 치료약제와 그 반응 및 부작용

환자의 이전 치료 약제와 본 외래에서 처방한 약제의 종류와 용량을 조사하였다. 치료 반응을 반응 없음, 환자가 가려움과 벌레 출현 빈도 감소를 말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않은 상태를 부분관해, 기생충망상증의 증상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를 완전관해로 표시하였고 약제 부작용에 대해 조사하였다.

4) 동반 질환 및 정신과 협진

기생충망상증 이외에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유무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 중에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더불어 당뇨나 고혈압 등의 전신 질환 유무와 관련 약제를 조사하였다. 그 외에도 정신과 협진 여부와 정신과 처방 약물의 종류와 용량, 치료 반응을 조사하였다.

결 과

1. 임상적 소견

총 32명 중에 남자가 6명, 여자가 26명으로 남녀 성비는 1 : 4.3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중 첫 내원시의 연령 분포

Table 1. Demographic and clinical characteristics of the patients with delusions of parasitosis

Demographics	No. of patients (%)
Women	26 (81.3)
Age, year	
Mean (range)	49.5 (27~72)
Duration of disease	
Over 6 months	22 (68.8)
Onset of disease (mean age, range)	46.5 (26~67)
Specimen sign	18 (56.3)
Symptom	
Pruritus	29 (90.6)
Pricking sensation	2 (6.3)
Others	1 (3.1)
Distribution	
Scalp	12 (37.5)
Whole body	11 (34.4)
Extremities	5 (15.6)
Trunk	3 (9.4)
Ear	3 (9.4)
Nostril	2 (6.3)
Perianal	2 (6.3)
Pubis	2 (6.3)
Face	1 (3.1)
Actual skin lesion	7 (21.9)
Biopsy	6 (18.8)

는 27~72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9.5세였다. 발생시 연령은 26~67세로 평균 발생 연령은 46.5세였다(Table 1). 증상이 처음 발생하고부터 본 외래에 내원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짧게는 1주일부터 길게는 30년까지로 나타났으며 이 환기간이 6개월 이상인 환자는 22명으로 전체 환자의 68.8%를 차지하였다(Table 1). 추적기간은 일회성 내원에서부터 36개월의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까지 다양했다.

Specimen sign 양성을 보인 환자는 18명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Table 1). 환자들은 비닐백이나 약봉지, 스카치테이프, 종이 등에 먼지, 때, 각질, 섬유조각, 곤충 등을 싸가지고 와서 현미경으로 검사해주기를 원하면서 자신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29명의 환자가 가려움증을 호소하였으며(90.6%) 동시에 따끔거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2명 있었고 이들 모두는 가려움증이나 따끔거림 외에도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든다고 하였다. 이 밖에 주관적인 증상보다도 벌레에 물리거나 쏘이고 나서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것을 호소하는 환자가 1명 있었다. 환자들이 주로 증상을 느끼는 신체부위는 12명이 두피, 11명이 전신이라고 하였고 콧구멍이나 귓구멍, 항문이나 회음부 등에서 벌레가 나온다고 하는 환자가 7명이었다. 그 외에도 사지나 몸통에 주로 증상을 느끼는 환자가 8명이었다(Table 1).